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전국 12개 지역, 다음 세대 예배 회복에 앞장서다

<2022 광림교회 청년부 교육선교> 7월 21일~8월 10일까지 진행

3년 만에 재개된 여름성경학교
지난 7월 21일 세종에서 시작된 <2022년 광림 청년부 국내교육선교>가 8월 10일(수) 천안, 고성 지방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예배가 좋아라'는 주제로 전국 12개 지역, 100개 교회, 1200여 명의 다음세대가 참여한 이번 교육선교에는 광림의 청년 250명이 함께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선교를 3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통해 즐거운 여름을 보내며 믿음과 추억을 쌓는다. 하지만 아이들의 숫자가 적은 교회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광림교회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교회의 신청을 받아 2007년부터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해 왔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교육선교 발대식에서 "일

상은 멈춰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 회복 운동에, 광림교회 청년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청년들이 참석 의향을 보일지 염려되었지만,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진 광림교회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행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국내교육선교는 단순히 참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약 6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다. 커리큘럼을 만들고, 각종 활동과 게임을 기획하여 필요소품 구매와 제작, 분반공부 교육내용 파악 및 리허설 등 각각의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준비한다. 또한 선교팀별로 40일 호렙산 기도회 참여, 기도로 준비하며 철저하게 영적훈련 과정을 거친다. 특별히 직장인들은 이번 교육선교를 위해 기꺼이 주말과 휴가를 반납하며 참여했고, 자발적으로 선교후원금 1,000만 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충주지역교회 연합 여름성경학교
선교현장의 열기는 뜨거운 날씨보다 더 후끈했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울동을 하는 아이들과 광림의 청년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충주지방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7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약 10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충주교회(최천호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충주교회는 성경학교의 중요성을 알고 충주지역 여러 아이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성도들은 식사 준비와 여러 봉사를 위해 나섰다. 충주 비전교회 교사와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태었다.

20여 명의 광림의 청년들은 전날인 27일(수)에 미리 도착해 세팅과 리허설을 진행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했다. 첫날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친교와 분반공부, 코스게임, 성경골든벨, 물놀이, 부흥회와 세족식 등을 진행하고 폐회에

바로 3일간의 여름성경학교를 마무리하였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짧은 기간이지만 충주지방 감리사와 지역교회 목사들은 이번 교육선교의 주제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박현서 청년(충주지방 팀장)은 "교육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아이들과 청년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번 계획과 달리 어긋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집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단단해졌던 것 같다"고 했다. 덧붙여 "저희 청년들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전국에 있는 교회학교 회복운동에 앞장서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선아 기자

온전한 말김과 참된 믿음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시편 28편 9절)

다윗의 인생 중 두 가지의 큰 아픔은 사울 왕과의 관계와 친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상처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자신의 친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아픈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친아들 압살롬이 권력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 가장 아픈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관계의 아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고,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믿음에 대해 깨닫게 되는 영적 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믿음.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본문 1절의 고백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면 자신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의지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억울한 일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본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라는 말은 다윗이 지성소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성소에도 갈 수 없는 형편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도망자 신분으로는 지성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간구이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향해 손을 드십니까? 누구에게 탄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 1-9절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3.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 는 악독이 있나이다 4.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같으 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5.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 다 6.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 여호와 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 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8. 여호와 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쁨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 로다 9.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 하소서

둘째, 중요심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실망과 배신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악인이라고 표현된 그들은 결과 속이 다른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중요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중요심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며 모두 다 내려놓고 기억 속에서는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악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모든 중요심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내 안에 증오의 마음과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개인적인 간구에서 찬양으로 이어지는 믿음.

다윗은 본문 6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찬송을

드린 이유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던 중에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나의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찬양은 과거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을 회상하며 현재와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삶의 곤고함, 외로움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극복한 후에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공허함과 외로움,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제까지 자신을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어려운 상황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과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에게로 돌립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막막하지만, 우리를 도와시는 하나님과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9절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탄원으로 시작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던 삶에서 다른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나의 축복에만 집착하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중보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생수의 강에서 심령을 새롭게

2022년 전교인 여름수련회 8월 12(금) ~ 14(주일)까지 열려



2022년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8월 12(금) ~ 14(주일) 까지 본당과 지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심령을 치유와 회복, 생명의 빛으로 이끈 호렐산기도회에 이어 3년 만에 열리는 전교인 여름수련회는 '생수의 강에서 심령을 새롭게'(겔 47:1~12)라는 주제로 8월 12일(금) 저녁 7시 30분 첫 집회를 시작했다.

이번 전교인 여름수련회는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 전 담임목사)가 네 번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찬양과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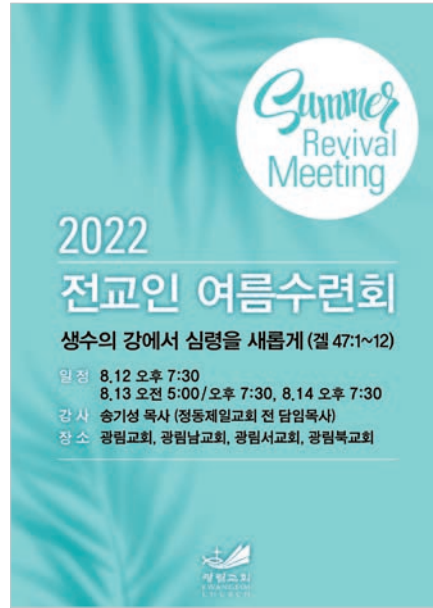
김정석 담임목사는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열어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임할 이스라엘의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가져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과 절망의 때를 지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을 베풀어 주십니다"라고 하며 "은혜로 주신 2022년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을 얻고, 생명력이 넘치는 미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

전교인 여름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송기성 목사는 광림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산에서 성결된 도구로 써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축복의 인사를 했다.

첫째날 '생수의 강에서 심령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이번 여름수련회가 성령 충만한 천국 축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생수의 강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 받는 인생이 되라"라고 전했다.

8월 13일(토) 둘째 날 새벽 5시 집회에서는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으라(시 118:1~17)는 말씀과 저녁 7시 30분 '변질 되지 말고 변화되라'(창 32:24~29)는 말씀으로 은혜를 더했다.



여름수련회 셋째 날 14일(주일) 저녁 7시 30분 집회에서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하라(딤후 1:6~8)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본당 1층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각 선교구 속회, 선교회별로 '추억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친교를 나누고 있다. 한편 여름수련회 첫째날 저녁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선교구 담당 목회자들이 마련한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로 자녀들도 은혜 충만을 함께하며 성도들을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고 있다.

2022년 전교인 여름수련회는 '생수의 강에서 은혜의 폭포수로 심령을 새롭게 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포토 뉴스



남선교회연합회 하계수련회
남선교회연합회는 8월 1일~3일 울릉도 동산교회에서 하계수련회를 진행했다.



어와나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 어와나는 7월 30일~31일 광림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영어예배부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 영어예배부는 8월 6일~7일 비전랜드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 되었습니다!

<2022년 2차 세례예식> 8월 7일 주일, 김정석 담임목사 집례로 37명 세례, 18명 입교



- 1교구 현 영 5교구 윤혜림 5교구 윤통수 7교구 강 란 7교구 김한빛 8교구 이상훈 10교구 양원경 11교구 진형준 14교구 김민재
- 16교구 이윤석 17교구 이근란 19교구 신하영 19교구 김지수 20교구 홍광유 21교구 김채화 22교구 오용세 22교구 김도연 23교구 진석인
- 23교구 진승후 24교구 김 웅 26교구 이세욱 26교구 손숙희 28교구 손미은 52교구 윤동준 61교구 이원형 71교구 김서진
- 88교구 최자연 88교구 안창환 88교구 김계원 88교구 유하비 88교구 성신애 88교구 박정아 88교구 신푸른 88교구 고수아 89교구 김지후
- 89교구 이유진 **입교 ->** 10교구 김혜진 12교구 이찬희 12교구 김재경 14교구 김안자 16교구 이규리 21교구 최승우 22교구 김도연
- 52교구 김재원 52교구 김희원 71교구 주예찬 88교구 이상엽 88교구 박주희 88교구 문다선 89교구 김세은 89교구 우요셉 89교구 김진형
- 89교구 김현호 89교구 조애리

담임목사 동정



- 8/7 세례예식
- 8/9 서울남연회 원로목사위로예배
- 8/10 수요치유의신학
- 8/11 사학미션네트워크 이단대책위원회
- 8/12~14 전교인여름수련회
- 8/14 광복절기념주일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사랑부 여름수련회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7월 23일(토)~24일(주일), 사회봉사관에서 열려



<2022년 사랑부 여름수련회>가 7월 23일(토)~24일(주일)까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창 35:3)라는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 5층과 장천홀에서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가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부 교사들은 호렙산 기도회 때부터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예배 후에도 교사기도회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며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사랑부 담당 김성산 목사는 “아픈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환난 날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베냐민에 올랐을 때, 엘벤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부도 여름수련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여름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사랑부가 다시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첫째날 오전에는 영성집회로 찬양, 설교, 기도회로 진행되었고, 오후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특별히 마술쇼를 관람하고, 마술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도 가지며 예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도 했다.

둘째날에는 주일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으로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사랑부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 속에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뛰어 놀며, 웃어주고, 기도하며 천국잔치를

만들었다.

우형진 장로(사랑부 위원장)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사랑부 형제 자매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다 같이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고 함께 뛰어 놀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예수님의 큰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랑부는 이번 수련회가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모이기에 힘쓰는 부서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백명순 기자

고등부 여름수련회

쉐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7월 29일(금)~31일(주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려



미래 하나님 나라의 주역인 고등부는 지난 7월 29일(금)~31일(주일)까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2박 3일간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오랜만에 비전랜드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130여 명의 많은 학생과 교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다시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수련회의 주제는 ‘쉐마, 나는 주님께 속한 자(신 6:1-9)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는 새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첫째 날 저녁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사들이 준비한 뮤지컬과 레크리에이션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웃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둘째 날 오후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다. 달빛 아

래 하나님께 편지 쓰는 시간도 의미 있었다. 비전랜드의 밤 풍경을 보며 학생들은 옥상에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며 기도회에서 받은 은혜와 학업과 진로 등의 고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기도회

김성산 목사(교육2부)는 저녁 집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시작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 쉬게 하리라(마 11:28) 가라, 함께 하리라(마 28:19-20)고 약속해 주셨다.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고등부 학생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대현(고1) 학생은 “저녁 집회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고등부 학생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웠다. 찬양을 부르며 기쁨이 넘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

며 사랑으로 돌보았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새벽 일찍부터 준비해준 호텔식 브런치를 먹으며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고 수련회에 더 집중하여 참여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별로 나눠준 달란트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게 매점을 운영하여 학생들은 맛있는 간식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체험했다.

집회 마지막 날에는 성찬식으로 폐회 예배를 드렸다. 고등부 학생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결단했다.

소현수 기자

청장년부

다리 잇는 사람들

9월 2일(토)~3일(주일) 청장년부 여름 캠프 사전 신청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했던 한 인물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란 특별한 직업으로 이름은 특이하게도 '방구뽕'입니다. 사실 그는 유명 학원 원장의 아들이자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의 유별난 교육열로 명문 대학에 입학했지만, 공부만 강요받아 추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들의 대장을 자처하며 술래잡기, 비석치기 등 동네 아이들을 모아 뒷산에서 신나게 놀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비밀로 했던지라 결국 그는 부모들에게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받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자연스럽게 배워질 때 가장 건강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감싸고 사랑할 때 신앙의 진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청장년 여름 캠프(이하 '아름다운 청장년 캠프' 아청캠프)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라"(신 3:25-28)의 주제로 개최됩니다. 35세 이상의 미혼(청장년 1부)과 신혼, 자녀를 키우는 부부(청장년 2부) 등 30대 이상의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 계관, 기도 제목,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번 캠프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캠프는 본당 뿐 아니라 지교회의

청장년들도 함께 동참하여 광림의 지붕 아래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60~70대는 후진국 시절 속에서도 헝그리 정신으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20대는 부모들이 가꾼 경제적 풍요 위에 K-문화 등을 만들었다는 선진국 국민의 자부심이 강한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 30, 40대가 끼어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서로 나누고 배우며 자연스레 몸에 익히고자 합니다.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의 청장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용찬 목사(청장년부)

신앙 간증

조건 없는 사랑

저는 2019년에 광림교회 청년부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며 화성으로 교육선교를 갔었습니다. 이번 2022년 교육선교는 3년 만에 떠난 저의 두 번째 선교였습니다.

3년 전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세종 땅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교육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선교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유치동부 아이들은 저의 생각보다 더 산만했고,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기도 했지만 점점 몸이 지치고 제 마음은 힘겨워졌습니다. 선교가 끝난 후에 돌아와보니 선교에 가기 전에 스스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줘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막상 선교에 가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 제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문득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Just for you" 그냥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을 베풀고자 했던 저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교회학교 고등부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청년부에서는 속장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직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본격적으로 두 직분을 맡기 전에 이번 선교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맡겨주실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돌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이끄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임의수 속장(청년부)

중등부 여름수련회

쉐마, 믿음 사랑 순종의 사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한 은혜의 시간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고 꿈과 소망을 회복하기 위한 중등부 여름수련회가 8월 5일(금)~7일(주일)까지 3년 만에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렸다.

'쉐마, 믿음·사랑·순종의 사람'이란 주제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약 14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석했다.

김성산 목사(교육2부)는 저녁 집회에서 '쉐마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고백이 된 말씀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훈련시키셨기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신앙고백이 있을 때 세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공부와 학원에 쫓기듯 살아온 아이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평안한 휴식을 주고자 다양한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한 '중심을 찾아라'에서는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달란트 찾기' 프로그램에서는 쿠키, 보컬, 댄스, 사진, 기타, 운동 등 아이들의 관심사에 따라 각각 다른 수업을 받는 윈데이 클래스를 개최했다.

가면을 쓴 채 마음껏 노래 실력을 뽐냈던 '복면가왕'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신명기 6장 4-5절 말씀을 기반으로 조별로 함께 이동하는 '코스게임'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로 뭉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며 조별 친구들끼리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 풍성하게 제공된 간식거리도 여름 밤의 더위를 날리기에 충분했다.

조호아(중등1부) 학생은 "3년 만에 가는 중등부 수련회라서 많이 설레었고 저녁집회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어 감사했으며 중등부 친구들과도 더욱 친해질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장동민(중등2부) 학생은 "수련회 기간 동안 다양하고 은혜로운 프로그램으로 수련회가

정말 재미있었으며,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중등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신 전도사님,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린다"는 마음을 전했다.

유병권 기자



목회현장

다시 그 자리로



박중섭 목사(6선교구)

2022년 2월 26일 저녁, 저희 집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응급실 가셨어요." 성도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뇌출혈 증상으로 응급실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건강하셨던 권사님께서 쓰러졌다는 소식에 참으로 충격이 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00병원으로 새벽에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른쪽 팔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어떤 병명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병원에 우리교회 권사님이 계셔서 자세한 상황을 문자로 주고 받고 또 가족들과 연락 하면서 주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도 출입하지 못하는 그 시간 계속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실까?

다행히 월요일 오후쯤 일반병실로 가시게 되었고 상태는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후유증이 얼마나 클까?' 염려하는 마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 권사님은 경황이 없어 다니시다가 사고를 당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호렙산 기도회 마지막 주간 때 기적같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2부 예배 2층 안내를 서고 있는데 계단을 하나하나씩 밟고 오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고 권사님을 붙잡고 감사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가끔씩 전화를 하면 우시는 권사님이 자꾸 마음이 쓰여 더 자주도 못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전혀 예상 못할 때 멀쩡하게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광림교회 권사님답게, 지구장님답게 대심방예배를 드리며 같이 예배 하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교구 식구들도 한 마음으로 격려했고 기도하였는데 정말 기적처럼 다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들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광림서교회

쉐마, 다시 기억하는 말씀



광림서교회는 지난 7월 16일(토)~24일(주일)까지 쉐마, 다시 기억하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여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아유치부 어린 아이부터 중고등부 학생까지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다양한 친교의 시간과 물놀이, 식사와 취침 등을 통해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시간에 울동과 찬양,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식사 준비와 봉사,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온 교회가 믿음의 다음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음을 보게 되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여름 행사를 자유롭게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이번 여름행사는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진행되어 아이들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쉐마, 하나님을 만나다



광림북교회 교회학교에서는 2022년 7월 23일(토)~24일(주일)까지 '쉐마, 하나님을 만나다'(신6:4)을 주제로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모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불어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에어바운스,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과 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원 학생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에게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김은채 어린이는 "모든 순서가 재미있었고, 매주 여름 성경학교처럼 예배와 찬양, 물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무더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을 다한 교사들, 봉사 선생님들, 주방봉사로 섬겨주신 여선교회 권사님들,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신 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광림북교회 교회학교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야마가타 광림교회

사랑의 공동체, 창립8주년 기념 감사예배



"더욱 더 사랑합니다." 일본 야마가타 성전에 올려져진 성도의 사랑 고백이다. 2022년 8월 7일, 창립 8주년을 맞아 야마가타 광림교회 성전에는 30여명의 성도가 모여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일본 선교는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모든 예배와 모임들

은 축소되고, 개인의 신앙생활은 점점 무너져 갔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입국이 전면 중단되면서 담당 목회자의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온라인으로만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었다. 일본 현지에서도 성도 간에 만남이 줄어들며 소통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교회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4월에 돼서야 종교비자를 받은 담당 목회자는 일본 땅을 밟을 수 있었고, 부활주일에 감격적인 첫 부임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많은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발적으로 교회를 지키며 헌신한 임원과 성도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 해주었다. 먼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 가는데 중점을 두고 신앙 회복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창립 8주년 예배를 통해 요한복음 13장 34-35절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 야마가타 광림교회가 일본 북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

셨듯,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 곧 이 땅의 일본인들도 사랑의 주님을 알게 될 것을 믿고 먼저 우리가 사랑하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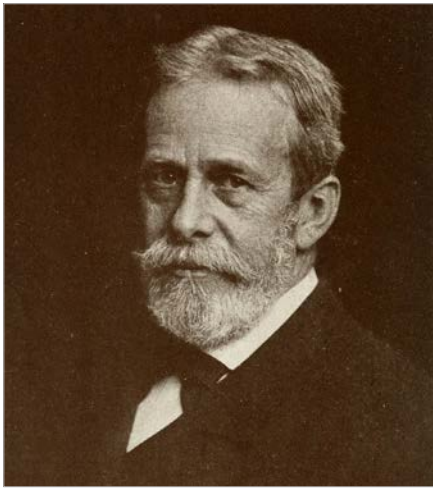
예배에 참석한 여선교회 회장 오쿠야마 미사토 권사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 우리 교회가 법인을 받도록 섬겨주신 광림교회 본당의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만약 코로나 전에 법인을 받지 못했다면 교회가 없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거저 받은 사랑을 일본 땅, 일본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야마가타 광림교회가 8주년을 맞이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는다. 앞으로도 야마가타 광림교회가 더욱 더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절절한 제단 되어 상처받은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영혼의 궁핍함 가운데 있는 일본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도신우 목사(야마가타 광림교회)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9

조선 선교의 아버지 가우처 목사



1845년 6월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웨인스보로에서 태어난 가우처 목사(John Franklin Goucher, 1845-1922)는 14세 때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869년 미연합감리교회에 허입한 후, 1871년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22년간 목회하며 15개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미연합감리교회의 동양 선교의 개척자였고 인도, 중국, 일본 선교의 지원 및 후원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조선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조선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882년 5

월 22일 조선과 미국의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며 이듬해 푸트(L. H. Foote)가 미국의 초대 공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에 대한 답례로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였는데, 인천항을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절단이 미국의 대통령 체스터 아서(Chester Alan Arthur)와 면담하기 위해 대륙횡단열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가우처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접근한 것은 가우처 목사였습니다. 그는 기이한 옷차림의 동양 사람들에게 통역관을 통해 어디서 왔는지 물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미연합감리교회의 조선 선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가우처 목사는 사절단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조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두 달 후 선교사 파송을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선교는 정세의 불안으로 인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가우처는 일본에 있던 매클레이(Robert Samuel Maclay) 선교사가 조선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여행경비를 후원하였고, 1884년 6월 24일 조선을 방문한 매클레이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의료와 교육 분야에 한해서 선교를 허락한다는 윤험을 받아내고 정동 일대의 땅을 매입하여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였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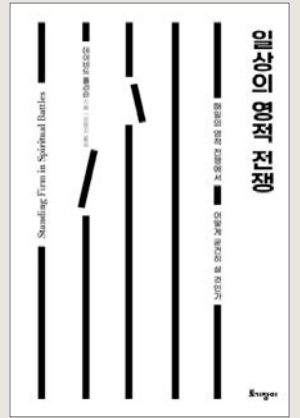
니다. 조선 선교는 매클레이 선교사가 적극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가우처 목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우처 목사는 계속해서 선교 기금을 헌금했고 미연합감리교회는 첫 번째 조선 선교사로 스크랜턴 대부인,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턴, 그리고 교육 선교사로 헨리 아펜젤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조선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모금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가우처 목사는 1907년부터 1920년까지 6년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으며,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조선기독교대학을 후원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나 유학자금을 마련해주기도 하였습니다. 1920년 늦가을 조선을 다녀간 후,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1922년 77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열차 안에서의 사절단과 가우처 목사의 우연한 만남,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나 스크랜턴 선교사,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던 가우처 목사, 그러기에 그를 조선 선교의 아버지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일상의 영적 전쟁]

데이비드 폴리스 지음

이 책은 우리의 일상이 모두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성격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말해준다. 진정한 영적 전쟁이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분노, 두려움, 현실 도피, 죽음 등의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나아가서 성경적 통찰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안내해준다.

성극위원회 <파워크리스천> 뮤지컬 단원 모집

광림교회 창립70주년 기념 뮤지컬 <The Dreamer> 공연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뮤지컬 2023년 4월 공연 'THE DREAMER(부제: 잇는 자들)'에 참여할 단원 모집

- 모집 분야:배우, 무대예술, 음향, 조명, 의상, 분장 및 스태프
- 지원 자격: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연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
- 오디션 일정: 2022년 11월, 장소, 시간은 추후 공지
- 공연 일시 및 장소: 2023년 4월 셋째 주, BBCH홀
- 문의 및 연락처
김상일 집사(010-2784-3775)
이강현 성도(010-3190-6483)

성극위원회는 연극이라는 몸짓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청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내 많은 성도와 소통하며, 이 땅의 황폐한 문화를 하나님의 선한 문화로 승화시켜 믿지 않는 많은 젊은이를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극위원회는 1983년 광림교회의 박관순 사모와 인천 학익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셨던 조중기 목사가 만든 연극부를 시작으로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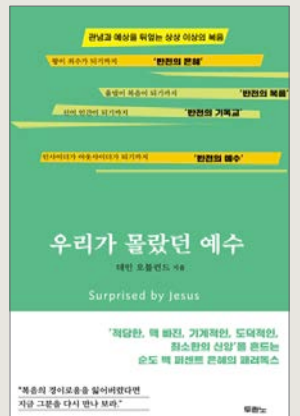
의 성극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파워 크리스천>이란 명칭은 1998년 10월 창립 45주년 기념 창작극 '빛을 올려라'란 성극을 무대에 올리며 이때 동참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예수 문화를 창출하자'라는 소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극위원회는 BBCH 아트센터와 연계, 우리 광림교회만의 문화 콘텐츠, 우리만의 극본,

우리만의 음악을 가지고 극을 올려 뉴욕의 프라미스교회와 같은 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파워크리스천의 배우와 스태프로 활동하고,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관준 장로(성극위원회)



[우리가 몰랐던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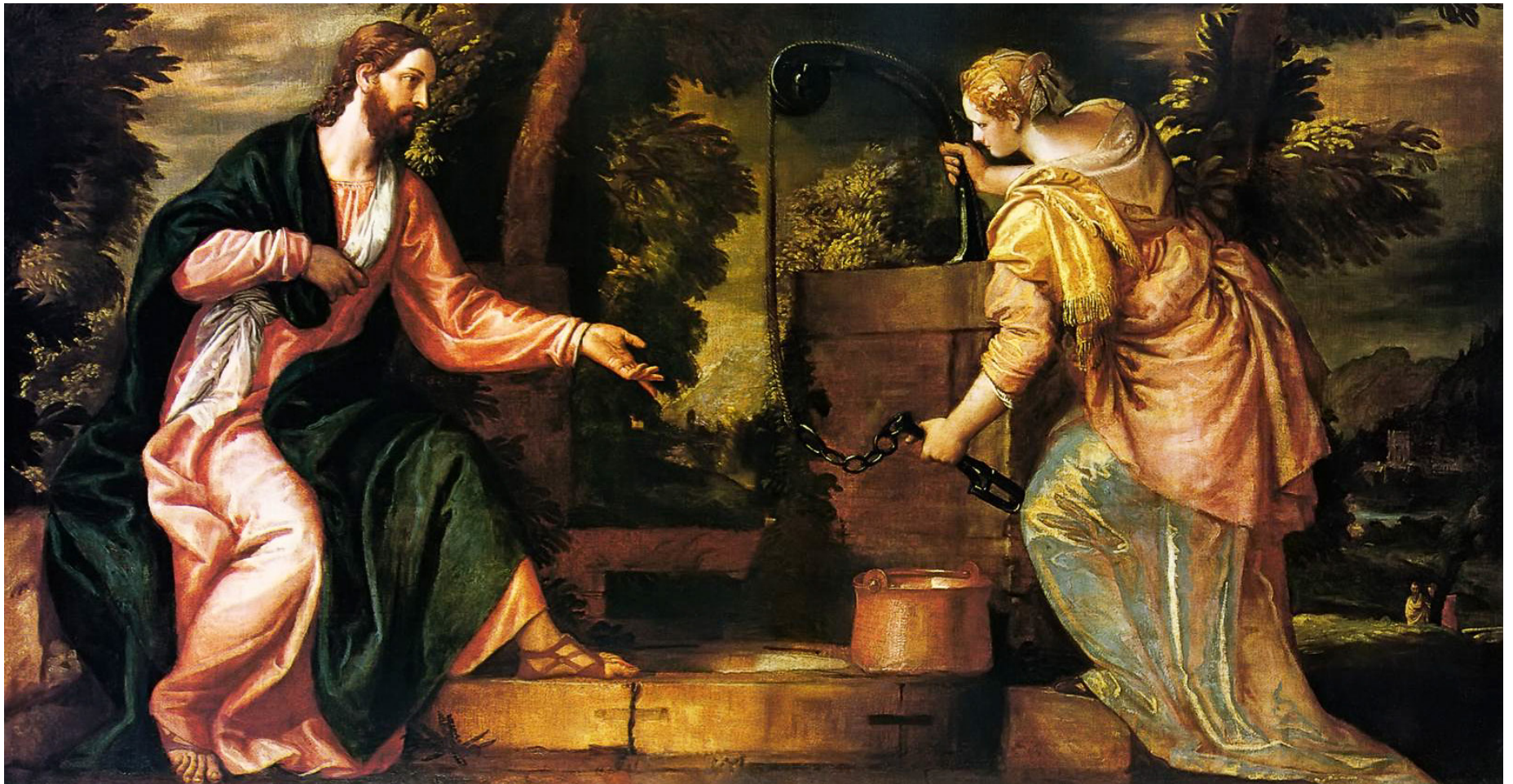
데이인 오틀랜드 지음

저자는 사복음서에서 각기 독특하게 나타나는 '전복적 은혜'를 담고 있다. 각 복음서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는 그분의 은혜를 보여 준다. 우리의 통념과는 다른 예수님의 '도덕적 정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명', 인사이드가 아웃사이드가 되신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의 공동체', 나아가 파격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루면서 '적당하고 형식적이며 최소한의 신앙'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흔들고 있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14



사마리아 여인의 기쁨 요 4:13-14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 예수는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경멸했다.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우물이 있다. 예수는 그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내려갔다. 그때 한 여인이 홀로 물을 길으러 왔다.

예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대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자에게 일렀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이에 그녀가 말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다. 나무 그늘이 있는 우물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듯 붉은 옷과 푸른 망토를 걸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다. 우물을 경계로 그의 맞은편에는 흰옷을 입고,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금색 두건을 쓰고, 두레박에 기대어 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몸을 돌리고, 허리를 굽혀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손가락으로 당신을 가리키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다.

즉 예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으로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믿음으로 물들고 있다. 블로흐는 그림 속 예수의 머리 뒤에 후광으로 거룩한 분임을 표현했고, 뒷배경에는 세 명의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구해오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 작품은 네덜란드 코펜하겐의 작은 도시 힐레르드의 프레데릭스 성에 있는 왕실교회가 소장한 블로흐의 23개 연작 중의 하나이다. 칼 하인리히 블로흐의 작품.

▲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낌 없이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파올로 베르네제의 작품.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였다.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말하였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놀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가 외쳤다. “내가 살아온 과거를 다 아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나를 따라오세요.”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앞세워 우물가로 몰려왔다.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자기 동네에 머물면서 좀 더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예수와 제자들은 이들을 사마리아에 머물며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광림뉴스레터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